

오픈코스웨어(OCW)의 국내 스페인어 교육 활용 방안

양 성 혜

단독/고려대학교

Yang, Sung-hye (2010), Aplicación de OpenCourseWare para la educación de español en Corea.

Abstract OpenCourseWare es un recurso educativo gratuito que ofrecen las universidades del mundo en un entorno virtual. Tanto los estudiantes como los profesores en Corea podrán disponer de ello con tal de que estén conectados a Internet. En el presente trabajo, nos enfocamos en la búsqueda de los OCWs útiles para la enseñanza o el aprendizaje de español. Primero, se presentan los portales de varias asociaciones de la OCW donde se pueden encontrar los materiales de español. En segundo lugar, analizamos algunos OCWs reconocidos de español como el MIT OpenCourseWare, OpenLearn: The Open University UK, OCW de las universidades de habla hispana, OCW del Instituto de Cervantes, etc. Para aprovechar al máximo de estos OCWs, será necesario juzgar si son rentables para los profesores o para los aprendices. Claramente los OCWs tratados en el presente trabajo resultan que unos sirven para la clase por parte de los profesores y otros, para el autoaprendizaje por parte de los estudiantes. En conclusión, añadimos unos criterios de seleccionar los adecuados OCWs cuando queremos usarlos.

Key words OpenCourseWare, Enseñanza-Aprendizaje en el entorno virtual, Educación de español en Corea

오픈코스웨어, 웹기반 교수 학습, 국내 스페인 교육

1. 서론

정보기술의 발달은 교육에서도 디지털 혁명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지난 십수년간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웹상에서 사이버 대학을 운영하여 지식 확산을 기하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등록 학생들에게 한하여 지식콘텐츠를 제공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 출발한 공개교육자원운동(Open Educational Resources Movement)은 고등교육기관이 더 이상 상아탑 안에 지식을 가두어두지 않고 웹상에 무료로 교육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을 외부에 개방하고자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고등교육의 기회가 국경과 계층을 넘어 일반인에게 열리게 되었다.¹⁾

예컨대 2002년 미국의 MIT 대학이 대학강의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래 2010년 현재 학부와 대학원의 1900개 코스의 교육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강의자료는 강좌소개, 학습목표, 과제 및 평가 방법, 교수방법, 수업자료 등을 pdf 파일로 제공하는 것이 주를 이루며, 강의동영상을 제공하는 강의도 일부 있다. 현재는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는 각국의 여러 대학들이 OCW(OpenCourseWare) Consortium에 가입하고 인터넷을 통해 검색엔진을 제공하여 대학의 강의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그 외 언어권역별 혹은 대륙별, 국가별로 다양한 협회들이 창설되어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²⁾

1) OECD의 CER(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는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OER movement의 배경 및 전망, 직면한 문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각종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2006년 포럼 자료로는 Hylén, Jan(2006)과 Joyce, Alexa(2006)을 참조하기 바라며, 보고서는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07)를 참조하기 바란다.

2) OCW는 MIT의 전임 총장 찰스 베스트가 축적한 지식, 강의 자료를 온라인에 전면 공개해 전 세계 지식나눔 운동에 기여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처음 시작됐다.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호응을 얻어, 아시아 내에서도 중국 CORE, 일본 JOCW 같은 협력단체와 기관을 기초로 OCW의 아이디어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려대가 지난 2007년 처음 OCW를 도입한 이후 연내 관심을 가진 대학 간의 협력단체인 KOCWC가 설립돼 국내 OCW 도입 및 홍보, 확산 작업을 위해 힘쓰고 있다(ETnews

이렇게 대학 혹은 연구 교육기관이 웹상에서 무료로 외부에 개방하고 사용 및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교육자료를 “Open Educational Resources(OER)” 혹은 “OpenCourseWare(OCW)” 라고도 부른다.

OpenCourseWare Consortium은 OCW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n OpenCourseWare is a free and open digital publication of high quality educational materials, organized as courses. (오픈코스웨이란 무료로 공개되는 고등 교육 자료의 디지털 출판물을 말한다)

다음의 Wikipedia의 정의도 비슷하다.

OpenCourseWare, or OCW, is a term applied to course materials in a virtual learning environment created by universities and shared freely with the world via the internet. (OCW란 대학에서 만들어져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무료로 가상 학습 환경에서 제공되는 코스자료를 말한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의 지식공개는 웹 2.0시대라는 현재 인터넷 문화의 흐름에 부응하는 현상이다. 인터넷 사용 초기가 웹생산자가 웹상에 올려 놓은 자료가 일방적으로 유저들에게 전달되는 웹 1.0 시대라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하여 유저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정보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정보의 생산자로서 참여하고 공유하는 웹 2.0 시대에 이르렀다고 한다.³⁾ 이러한 웹 트렌드의 중심에는 블로그, 위키피디아, UCC 등이 있는데 Social Web이라고도 불리는 웹 2.0은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3가지 큰 철학적인 배경으로 설명되므로 무료로 강의자료를 개방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운동도 동일한 맥락

2008년 10월 24일 기사, <http://www.etnews.co.kr>).

3) ‘Web 2.0’이라는 용어는 미국 IT 출판사 O’ reilly Media, Inc사의 부사장이 닷컴 붐 후 웹 환경의 변화에 대해 표현한 것이 시발이 되었고, 2004년 10월 제 1회 웹 2.0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면서 ‘플랫폼으로서의 웹’ 즉 ‘웹이 일방적인 지위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들에 플랫폼과 데이터가 개방되어 유저들 스스로 새로운 지식과 데이터를 창출하고 이 자료가 공유되는 웹’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 세상에 널리 유포되어 쓰이게 되었다(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2008, 234).

에서 이해할 수 있다.⁴⁾

한편 웹상의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 전송, 사용, 재사용할 경우 창작자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웹 2.0 시대에서는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매우 중대한 국제적 공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용으로 사용되어졌을 경우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은 예외가 적용되므로 공개자료인 경우⁵⁾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막론하고 인터넷 상에서 교육자료의 개방, 공유의 흐름이 대세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세계 우수 대학이 무료로 제공하는 양질의 강의자료 중 스페인어와 관련된 OCW의 자료의 경향을 소개하고 그 활용도에 대해 상고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쓰였다. OCW는 무료이면서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국내 교수자나 학습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교수 학습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오픈코스웨어 검색엔진을 갖춘 대표적인 사이트를 소개하고 웹상의 스페인어 관련 오픈코스웨어를 수집, 분석하고 국내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학습자와 이를 가르치는 교수자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그 활용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4) 블로그는 Web과 Log를 합친 말로 스스로가 가진 느낌이나 품어오던 생각, 알리고 싶은 견해나 주장 같은 것을 웹에 일기(로그)처럼 차곡차곡 쌓아올려서 다른 사람도 보고 읽을 수 있게끔 열어 놓은 글모임이라고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블로그를 '1인 미디어'라고도 부른다. 위키피디아(Wikipedia)는 1995년 네티즌들이 협동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자는 미국 프로그래머 워드 키닝햄의 아이디어로 출발했고 현재 브리태니커보다 3배나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집단지성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UCC(User Created Content)는 회사나 서비스업체에서 올려놓은 콘텐츠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하여 올린 콘텐츠를 가리킨다(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2008, 236-242).

5) OER(OCW)은 오픈라이선스인 CCL(Creative Common Licence)을 취하므로 무료 개방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CCL에는 학습 콘텐츠와 콘텐츠 개발 및 사용, 보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저작권 공개와 같은 관련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II. 오픈코스웨어 검색엔진과 스페인어권 자료 현황

먼저 오픈코스웨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엔진을 갖춘 국내외 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OPENCOURSEWARE CONSORTIUM (www.ocwconsortium.org)

OPENCOURSEWARE CONSORTIUM 홈페이지에서는 국가별로 각 대학이 제공하는 오픈코스웨어를 한번에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어권 참여국은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페루, 푸에르토리코, 스페인, 베네주엘라로 모두 9개국이다. 총가입국이 32개국이니 스페인어국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영어권 주요국가와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국가별로 가입대학 목록이 나오고 각 대학을 클릭하면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오픈코스웨어 사이트에 접속된다.

2. 한국오픈코스웨어(KOREAN OPEN COURSEWARE) (www.kocw.net)

한국오픈코스웨어(KOREAN OPEN COURSEWARE)는 한국학술정보원(KERIS)에서 구축한 검색사이트로 주로 KERIS가 개발비를 지원한 오픈코스웨어를 중심으로 2009년 11월 기준 전국 43개 대학의 535개의 오픈코스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강의자료 외에도 해외 강의자료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하지만 국내 대학이 제공하는 스페인어 코스웨어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KOCW의 홈페이지에서는 국내 및 해외 무료 코스웨어 검색엔진이 있으며, 아래 배너에 세계 주요 오픈코스웨어 검색 사이트를 스트림해주고 있어 한국어에 익숙한 검색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⁶⁾

6) 국내 OCW협회인 KOCWC(Korea Open CourseWare Consirtium, www.kocwc.org)는 국내 10개 대학(고려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신라대학교, 인하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연합으로

3. Open Educational Resources Commons (www.oercommons.org)

Open Educational Resources Commons에서는 주로 영어권의 각종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오픈코스웨어 자료를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스페인어 자료는 상당수의 미국 및 영국 대학의 언어 및 문화 강의자료가 검색된다.

4. OpenCourseWare Universia (<http://ocw.universia.net/es/>)

OpenCourseWare Universia는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포르투갈 대학 연합 오픈코스웨어 협회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오픈코스웨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엔진을 갖고 있다. 가입 대학 수는 1,056개교이며 스페인어, 까탈루냐어, 에우스께라(바스크어), 갈리시아어, 포르투갈어, 브라질포르투갈어, 아랍어, 중국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러시아어 총 14개어로 홈페이지를 볼 수 있다. 스페인어권 대학이 제공하는 OCW가 모두 검색된다.

III. 스페인어 관련 오픈코스웨어의 예

위에서 소개한 국내외의 오픈코스웨어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스페인어 관련 오픈코스웨어를 검색했을 때 찾아지는 유용한 오픈코스 예에 대하여 상술해보기로 한다.

1. MITOpenCourseWare (<http://ocw.mit.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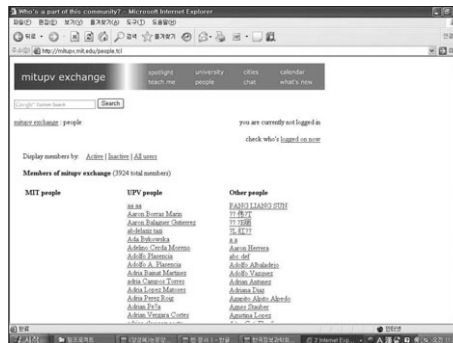
MIT가 가장 먼저 대학내 강의를 오픈코스웨어로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스페인어 관련 강의도 상당수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강좌 자료를 오픈하고 있다.

각 대학의 OCW를 검색할 수 있는 엔진을 제공하고 있으나 KERIS의 KOCW에 비하여 가입대학수와 코스웨어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KOCWC에서도 스페인어 강좌는 단 하나도 검색되지 않는다.

- 1) Spanish 3, Spring 2003
- 2) Spanish 3, Spring 2006
- 3) Spanish 2, Spring 2004
- 4) Spanish for Bilingual Students, Spring 2003
- 5) Crucible of Empire: The Spanish-American War
- 6) Oral Communication in Spanish, Spring 2004
- 7) Spanish Conversation and Composition, Fall 2003
- 8) Spanish 4, Spring 2005

Spanish 3의 경우를 보면 2003년도 강의자료, 2006년도 강의자료로 구분하여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이중 Spanish 3, Spring 2006를 예로 살펴보면 주로 정규 수업 과정의 소개 (Course Home), 주차강의계획서(Syllabus), 과제(Assignments), 프로젝트 (Projects), 강독(Readings), 시험개요(Exams), 학습자료(Study Materials), 수업자료(Download Course Materials)를 제공한다. 이중 학습자료(Study Materials)와 수업자료(Download Course Materials)는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어 오픈코스웨어만으로 자가학습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다만 교수자들이 스페인어 수업을 구성하는 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문법 및 연습문제 등의 보조자료를 pdf 파일로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자에게 유용하다고 보인다.



〈그림 1〉 MIT-UPV Exchange 홈페이지내 People(Gente) 화면

학습자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프로젝트’ (Projects)의 경우인데 스페인어권대학인 Universidad Politécnica de Valencia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영어권 MIT에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MIT-UPV Exchange, <http://mitupv.mit.edu/>)를 만들고 여기에 참여할 것을 수업과제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학생도 이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People’ (Gente)에 접속하면 ‘MIT people/ UPV people/ Other people’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총 가입자 수를 구분하여 보여주는데 약 4,000명에 이른다.

배너 중 ‘Universidad’에 들어가면 양대학 학생들이 각자 관심 주제에 대하여 영어권 학생들은 스페인어로 스페인어권 학생들은 영어로 글을 남기고 상호 덧글을 다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글에 덧붙여 동영상 및 사이트, 사진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이 코너는 학생들이 관심주제에 대해 다양한 글쓰기를 목표로 표현하여 쓰기 기술을 연마함과 동시에 상대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인 채팅과 비교할 때 비슷한 연령대의 대학생 집단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 교환을 가능하게 설계되어 학습자 특성 중심적인 활동으로 지속적인 동기를 유발한다고 보인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제는 <표 1>과 같다.

요약하면 MIT의 스페인어 오픈코스웨어는 주로 스페인어 언어 수업 및 문

<표 1> MIT-UPV Exchange에서 선택할 수 있는 토론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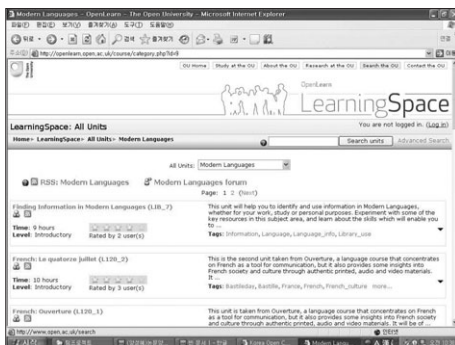
choose a category :		
academics	discuss academics	vida académica
extracurricular activites	discuss extracurricular activites	actividades
athletics	discuss sports	deportes
majors	discuss different majors	cursos
residences	discuss where we live	residencias
social life	discuss our social lives	la vida social
traditions	discuss school traditions	tradiciones

화 수업의 강의계획서와 보조적 텍스트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교수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언어수업에서 프로젝트 과제로 제시하는 스페인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는 비슷한 연령대의 대학생 집단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 교환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한국의 학습자에게도 추천할만하다고 보인다.

2. OpenLearn: The Open University UK (www.open.ac.uk/openlearn/home.php)

OpenLearn은 영국 The Open University에서 무료로 코스웨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Free Learning Resources'에 들어가면 스페인어 관련 코스를 볼 수 있는데 LearnigSpace 와 Labspace로 나뉘어져 있다. LearningSpace에서 Modern languages에 들어가 보면 스페인어코스가 현재 4개 제공되고 있고 같은 코스를 Labspace에서는 재사용 혹은 리믹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1) Spanish: Espacios públicos (L194_1)
 학습시간: 20시간 단계: 초급(Introductory)
- 2) Spanish: Con mis propias manos (L314_1)
 학습시간: 12시간 단계: 중급(Intermediate)
- 3) Spanish: La historia piedra a piedra (L204_1)
 학습시간: 12시간 단계: 중급(Intermediate)
- 4) Spanish: Perspectivas porteñas (L314_2)
 학습시간: 4시간 단계: 중상급(Advanced)



〈그림 2〉 OpenLearn: The Open University UK 홈페이지

〈표 2〉 Spanish: Espacios públicos의 과구성

Introduction	
Las plazas	
Sesión 1	Arte y ciencia
Sesión 2	Monumentos y edificios famosos
Sesión 3	Visita a Santiago y Montevideo
Sesión 4	Espacios públicos
Sesión 5	Un bar en La Habana
Sesión 6	El centro deportivo
Sesión 7	Perdido en Barcelona
Sesión 8	Hoteles con alma
Sesión 9	Repaso
Sesión 10	¡ A prueba!
	A guide to Spanish instructions
	References and Acknowledgements

기체험 학습자에 의해 점수도 최고 별 5개까지 매겨져 있어 코스 선택시 참고할 수 있다.

이중 Spanish: Espacios públicos (L194_1)를 살펴보면 <표 2>에서처럼 총 10개 과(Sesión)로 구성되는데 각과는 5개의 actividad으로 구성된다. Actividad은 기초단어를 주고 문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직접 문법이나 단어 퀴즈를 풀고 문맥이 있는 글을 읽고 음성파일로 제공되는 듣기 퀴즈를 하고 마무리 단어 표현 정리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OpenLearn의 스페인어 강좌는 교수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철저히 학습자를 위한 것이다. MIT의 오픈코스웨어가 강의계획서 및 강의보조자료라면 OpenLearn의 스페인어는 가상교실(Clase virtual)로 학습자가 웹에 기반하여 자가학습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어 국내의 스페인어 학습자 중 자가학습을 원하는 학습자에게 권할만하다. 콘텐츠 구성에서 특이사항은 각과는 모두 설명부분과 이를 응용한 연습문제식의 actividad로 구성되는데 총 8과이며 나머지 두과는 요약 정리 및 평가에 할애되고 있다. 9과는 복습으로 단어 및 표현 요약인데 역시 연습문제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10과는 자가 평가가 가

능한 문제만 제공되어 있어 학습자 스스로의 수행을 유도한 설계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연습문제 식의 구성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먼저 학습자는 빈칸에 직접 타자로 답을 못쓰게 되어 있다. 머리 속에 답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주어지는 정답 보기 버튼을 누르면 원래 문제 제시 화면에 답이 바로 표시되지 않고 아래에 따로 답이 나타난다. 이는 이러닝 화면설계에 대한 문제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학습자들의 동기를 떨어뜨린다고 본다. 즉 상호작용이 결여된 무미건조한 피드백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스페인어권 대학의 오픈코스웨어자료

OpenCourseWare Universia에서 검색되는 스페인어 관련 오픈코스웨어는 주로 언어 자체를 습득하기 위한 수업이라기보다 주로 자국학생들을 위한 언어교육론, 언어습득론, 언어사 등의 이론수업의 강의계획서들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강좌들이 검색된다.

- 1) Lengua Española (OCW Universidad Carlos III)
- 2)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II (OCW de la Universidad de Alicante)
- 3) NTIC en la enseñanza de segundas lenguas (L2)/ lenguas extranjeras (LE) (OCW de la Universidad de Alicante)
- 4) Español coloquial (OCW de la Universidad de Alicante)

예컨대 Universidad Carlos III에서 제공하는 오픈코스웨어인 'Lengua Española'의 경우 강좌소개(Descripción curso), 평가(Evaluación), 스페인어 주차강의계획서(Lengua Española), 보조자료(Materiales docentes), 강좌목표 (Objetivos asignatura), 실습(Prácticas)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수자를 위한 강의계획서 및 보조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 대학원 수업의 강의자료로 교수자가 참고할만하다.

4. 외국어로서 스페인어 교육 기관 및 교수자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코스웨어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페인어권의 외국어로서 스페인어 교

육 관련 기관이나 교수자들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코스웨어들이 있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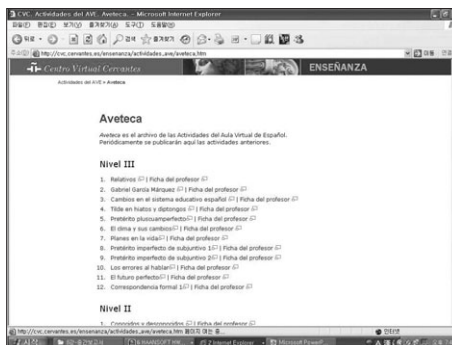
1) 스페인문화원(Instituto de Cervantes, www.cervantes.es)

스페인 문화원에서 제공하는 웹상의 가상교실은 ‘Aula Virtual de Español (AVE)’ (<http://www.cvc.cervantes.es/aula/>)라고 부른다. 스페인 문화원 가상 교실은 AVE 일반 어학코스인 ‘español general’ 코스와 스페인어 공인인증 시험 준비과정인 ‘Preparación DELE’ 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Español general’ 경우 Inicial/ Intermedio/ Avanzado/ Superior의 총 4단계로 자가학습이 가능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코스웨어이다. ‘Preparación DELE’ 의 경우 Nivel Inicial(B1)와 Nivel Intermedio(B2)의 두 단계만 코스웨어가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두 코스 모두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추천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료 코스웨어와 별도로 스페인 문화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스페인어 온라인 교육자료가 있어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그 양이 방대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국내 교수자와 학습자들에게 추천할만하여 오픈코스웨어라고 부를만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

① AVETECA

(http://cvc.cervantes.es/ensenanza/actividades_ave/aveteca.htm)

Aveteca는 AVE의 유료코스에서 이미 사용된 지난 Actividad들을 모아서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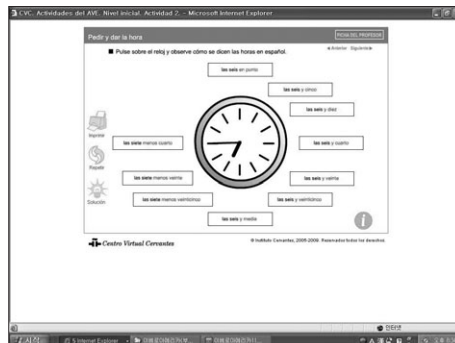
〈그림 3〉 Aveteca에서 제공하는 무료 Actividad 파일

료로 제공하고 있어 오픈코스웨어 성격을 띤다. 먼저 수준에 따라 Nivel I에 총 52개의 actividad 주제가 있고, Nivel II에도 역시 52개의 actividad 주제가 있고 Nivel III에는 12개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 수준별 Actividad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의 교수자들이 제공하던 텍스트 기반의 수업 보조자료 수준을 뛰어넘어 각 주제를 클릭하면 학습자들이 멀티미디어로 구현된 인터랙티브 actividad이 여러 개 제공되고 학습자가 답을 적거나 마우스를 이용해 단어나 표현을 옮겨 답하게 되고 정답 버튼을 클릭하면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피드백이 주어지며 인터랙티브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거의 학습자를 위한 자가학습용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교수자들을 위한 TIP도 'Ficha del profesor' 에서 제공하고 있어 교수자 측면에서도 매우 활용도가 높은 오픈코스웨어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ivel I의 'Pedir y dar la hora' 를 들어가 보면 많은 인터랙티브 설계로 구현된 Actividad이 있는데 예컨대 <그림 4>와 같이 시계를 클릭할 때마다 6시 정각에서 시작하여 5분씩 늘어날 때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는지 음성과 텍스트로 함께 제공된다.

<그림 5>는 다른 actividad을 보여주고 있는데 3쌍 중 하나를 클릭하면 시간을 묻는 간단한 대화가 음성으로 들리고 학습자는 이 대화를 듣고 몇 시인



<그림 4> Pedir y dar la hora의 Actividad의 예 1



〈그림 5〉 Pedir y dar la hora의 Actividad의 예 2

지 빈칸에 써 넣어야 하는 듣기 연습문제형이 제공되어 학습자의 시간표현 습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따라서 AVETECA가 제공하는 Actividad은 문법과 표현 습득을 항목별로 제공하고 있어서 교수가 수업시간에 강의자료로 이용하거나 학습자가 자가학습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Mi mundo en palabras

(<http://cvc.cervantes.es/ensenanza/mimundo/default.htm>)

반면 스페인 문화원 홈페이지에서는 처음 스페인어를 배우는 7-9세 사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만든 ‘Mi mundo en palabras’라는 단어학습자료 (Material interactivo para el aprendizaje del vocabulario)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림 6〉 Mi mundo en palabras 시작화면

있는데 단어와 표현 학습에 매우 유용한 교육자료다. 애니메이션으로 퀴즈 식으로 배울 수 있게 설계하여 인터랙티브한 학습이 가능하게 하여 흥미를 유발하며 꼭 해당연령의 아동이 아니더라도 모든 연령에 걸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 보인다. 학습자의 자가학습이나 교수자의 수업보조자료로 사용하면 매우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Actividad 구성은 학교(la escuela), 공원(el parque), 가족(la familia), 놀이(los juegos), 집(la casa), 동물(los animales) 등의 10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기 주제 선택화면은 <그림 7>과 같이 로켓이 날아다니는 애니메이션으로 음악과 함께 제공되는데 주제를 대변하는 그림 중 하나에 마우스를 올리면 주제의 제목이 스페인어로 나타난다.

각 과를 구성하는 제목은 다음과 같다.

- 1) ¡Hola! Soy Carlos
- 2) Esta es mi familia
- 3) Vamos a jugar a mi casa
- 4) En el parque
- 5) Mis dibujos
- 6) La clase de Gimnasia
- 7) En el cole
- 8) Un fin de semana especial
- 9) Excursión a la granja



<그림 7> Mi mundo en palabras의 초기 주제 선택화면

10) Fiestas de disfraces

이중 'Esta es mi familia' 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학습메뉴가 나타나는데 매과가 구성이 동일하다.

- El mundo de Carlos
- Pasatiempo
- Taller
- Mochila de Palabras

'El mundo de Carlos' 에서는 주인공 Carlos가 가족에 대해 사진을 보고 얘기하는 애니메이션이 제공되는데 각 사람을 가리킬 때마다 단어가 활성화되어 가족에 대한 단어를 음성으로 듣고 습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이외 2-3개의 다른 애니메이션이 더 제공되어 충분한 음성 input이 시각적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Pasatiempo' 에서는 학습자들이 해당 과제를 잘 수행하면 바위산에 매달린 Carlos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게임적 요소를 가미하여 학습자들의 동기를 활성화시킨다. 'Taller' 에서는 예컨대 가장 친한 친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하고 다시 머리 색깔을 선택하고 눈 색깔을 단어를 보고 선택하면 우편에 친구의 이미지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나오게 되어 있어 매우 창의적인 Actividad을 구현하여 전혀 지루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그림 8> Mi mundo en palabras의 'Esta es mi familia' 를 선택시 보여지는 학습 메뉴

‘Mochilas de palabras’에서는 이 과에서 배운 단어를 나타내는 그림이 제공되어 각 그림을 클릭하면 음성으로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 복습의 효과가 있다.

스페인 문화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 코스웨어는 아동을 겨냥하여 제작된 애니메이션 기반의 인터랙티브 코스웨어이지만 깔끔한 비주얼 설계,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적절히 조화롭게 구성한 인터랙티브한 설계로 즐겁게 학습을 할 수 있게 구현되어 성인 스페인어 학습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할만하다고 보이며 수업시간에 교수자들이 이용해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Todoole (www.todoole.net)

Todoole는 교수자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다. 미국 Columbia대학, Hong Kong 대학, 벨그라도 스페인 문화원(Instituto Cervantes de Belgrado), 영국 Oxford대학, 브라질 Universidade Federal de Alagoas, 이탈리아의 Universidad de Módena, 스페인 이민자 교육 분야 등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있는 총 9명의 교수자들이 모여 만든 스페인어교육관련 교수법, 이론, 출판물, 수업자료, 구인구직 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이 중 “Materiales didácticos”(수업자료)에 들어가면 교수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Actividades”에서는 각 Actividad을 수업시간에 이용할



〈그림 9〉 Todoole 시작화면

때 기준이 되는 ‘Contenidos gramaticales’, ‘Contenidos funcionales’, ‘Contenidos culturales’을 명시하고 적용 가능한 학습자 수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각 Actividad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에 대해 설명글이 있고 부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및 이미지 자료를 실제 크기로 수록하여 출력만 하면 바로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스페인어 교수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Canciones”에서는 스페인어 어떤 노래가 어떤 문법 연습에 유용한지 분류해놓고 노래 가사 뿐만 아니라 YouTube에 해당 노래 동영상을 링크해놓고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Actividad을 소개하고 있어 교수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팁을 제공하고 있다.

3) MarcoEle (Revista de Didáctica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www.marcoele.com)

MarcoELE는 스페인어 교수기법에 관한 연구논문 및 관련 소식을 전하는 잡지의 사이트이다. 웹상에서 무료로 논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서 스페인어 교수법 및 교육자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 동향을 접할 수 있어 국내 교수자들에게 권할만한 사이트이다.

IV. 스페인어 OCW의 국내 활용도



〈그림 10〉 MarcoEle의 시작화면

<표 3> 오픈코스웨어의 권장 사용주체에 따른 분류

교수자를 위한 OCW	학습자를 위한 OCW
MIT OCW 강의자료 http://ocw.mit.edu	MIT-UPV Exchange http://mitupv.mit.edu/
OpenCourseWare Universia에서 검색되는 스페인어권 대학 강의자료 http://ocw.universia.net/es/	OpenLearn(The Open University UK) http://www.open.ac.uk/openlearn/home.php
스페인어 교수자 사이트 Todoele 교육자료 http://www.todoele.net/	
MarcoEle 어학교육 잡지 http://www.marcoele.com	
스페인문화원 제공 AVE-Aveteca http://cvc.cervantes.es/ensenanza/actividades_ave/aveteca.htm	
스페인 문화원 제공 Mi mundo en palabras http://cvc.cervantes.es/ensenanza/mimundo/default.htm	

264

265

해외의 오픈코스웨어의 활용하고자 할 때 교수자에게 도움이 되는 코스웨어와 학습자의 자가학습에 도움이 되는 코스웨어로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수자와 학습자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스페인어 OCW를 교수자를 위한 코스웨어인지 학습자를 위한 코스웨어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다.

MIT나 스페인어권 대학에서 제공하는 스페인어 수업자료는 강의계획서 수준으로 교수자에게 적합한 오픈코스웨어인 반면 MIT 강좌내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MIT-UPV Exchange 과정은 국내 학습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오픈코스웨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The Open University가 제공하는 OpenLearn의 스페인어 강좌는 학습자 중심의 자가학습이 가능한 오픈코스웨어였다. 또한 Todoele는 수업보조자료를 제공하고 MarcoEle는 언어교육 연구물을 제공하므로 교수자에게 적합한 사이트이다. 스페인문화원(Instituto de Cervantes)의 가상수업 AVE는 학습자 자가학습에 알맞지만 유료코스웨어라서 일단 표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지난 actividad을 모아서 무료로 제공하는 'Aveteca'의 경우 학습자 자가학습이나 교수자가 수업에서 이용하기에

검색이 없는 오픈코스웨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페인 문화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Mi mundo en palabras’ 라는 단어학습코스의 경우 아동을 겨냥하여 만든 애니메이션 기반의 인터랙티브 코스웨어이지만 흥미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할 수 있게 동기 부여가 된 매우 잘 설계된 코스웨어로 성인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모두 추천할 만한 오픈코스웨어로 보인다.

이외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웹 2.0시대의 흐름에 주도적인 경향 중 하나인 UCC 동영상의 경우 훌륭한 교수학습자료가 될 수 있다. 예컨대 YouTube에서 스페인어 수업에 관련된 동영상을 검색하면 스페인어의 ABC 부터, 발음, 문법, 표현에 관한 짧은 수업 동영상이 수없이 검색되는데 매우 창의적으로 재밌게 구성된 동영상도 많아 교수자나 학습자가 스페인어를 가르치거나 배울 때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국내에서 한정된 자료로 스페인어를 학습 혹은 교수하는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해외 고등교육기관이 무료로 웹상에 공개하는 강의자료 ‘OpenCourseWare’ (OCW)는 유익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오픈코스웨어 운동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영어권과 스페인어권 대학의 스페인어 교육 관련 오픈코스웨어의 사례를 수집하여 국내 교수자에게 활용도가 높은 자료와 학습자의 자가학습에 활용도가 높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끝으로 국내 스페인어 교수자 및 학습자가 해외 오픈코스웨어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및 특징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자를 위한 OCW인지 학습자를 위한 OCW인지 구분하여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 영어권 대학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대상의 언어수업자료가 오픈코스웨어로 많이 제공되고 있는 반면 스페인어권 대학에서는 주로 자국전공학생

대상의 언어교육학, 언어습득론과 관련된 이론 강의가 제공되고 있어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OCW 제작국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어권 대학의 스페인어 관련 오픈코스웨어는 스페인어를 영어로 설명하고 있어 국내 학습자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스페인어 학습과 동시에 영어학습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중언어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스페인어권은 대학보다 스페인문화원(Instituto de Cervantes)이 제공하는 'Aveteca'의 무료 actividad 코스웨어와 'Mi mundo en palabras'와 같은 애니메이션 기반의 단어학습 코스웨어가 설계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학습자들의 자가학습뿐만 아니라 교수자들의 수업에 사용할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교수법이나 수업보조 자료를 얻고자 하는 국내 스페인어 교수자들에게 해외 스페인어 교수자들의 커뮤니티인 'Todoele'나 언어교육저널 'MarcoEle'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픈코스웨어는 진정한 의미의 이러닝(E-Learning)의 견지에 보았을 때 많은 한계를 지닌다. 한태인, 곽덕훈(2006, 20)에 따르면 '이러닝은 학습자 중심의 융통성 있고 상호작용적인 환경 속에서 정보와 교수 내용을 전달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과 활동을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의 교육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오픈코스웨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긴 하지만 교수자와 학습자간 혹은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결여된 일방적인 자료로 밖에 활용될 수 없어 교수자나 학습자가 그 교육효과를 맹신해서는 안된다. 즉 국내 교수자 측면에서는 오프라인의 수업을 보조하는 자료로 사용할 때 한하여 OCW가 유용할 수 있을 뿐 완전히 수업 전체를 대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학습자 측면에서는 OCW에서는 학습자가 교수자와 소통할 수 없고 학습관리를 해주는 튜터도 없기 때문에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결여되어 학습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인식하고 해외의 OCW를 국내 스페인어 교수 및 학습에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교육자료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일조하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남기춘(2008), < [ET단상]오픈코스웨어 그리고 웹2.0시대의 교육>, enews 전자신문(2008.10.24),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10230118>
-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2008), 『한권으로 끝내는 이러닝 교수설계 실무』, 한국생산성본부 정보문화원.
- 한태인, 곽덕훈(2006), 『이러닝 유러닝』, 한독산학협동단지.
- Hylén, Jan(2006), “Mapping users and producers of Open Educational Resources,” UNESCO, Open Educational Resources finding from an OECD study, 13 November - 1 December 2006.
- Joyce, Alexa(2006), “OECD study OER,” *Forum Report, UNESCO, Open Educational Resources finding from an OECD study*, 13 November - 1 December 2006.
-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07), “Giving Knowledge for Free-The emergence of open educational resources,” *OECD Publishing*.
- 한국오픈코스웨어 <http://www.kocw.net>
- 한국오픈코스웨어 컨소시엄 <http://www.kocwc.org>
- Aula Virtual de Español (AVE) <http://www.cvc.cervantes.es/aula/>
- Aveteca http://cvc.cervantes.es/ensenanza/actividades_ave/aveteca.htm
- Instituto de Cervantes <http://www.cervantes.es>
- MarcoEle <http://www.marcoele.com>
- Mi mundo en palabras <http://cvc.cervantes.es/ensenanza/mimundo/default.htm>
- MITOpenCourseWare <http://ocw.mit.edu>
- MIT-UPV Exchange <http://mitupv.mit.edu/>
- Open Educational Resources Commons <http://www.oercommons.org>
- OpenCourseWare Consortium <http://www.ocwconsortium.org>
- OpenCourseWare Universia <http://ocw.universia.net/es/>
- OpenLearn: The Open University UK <http://www.open.ac.uk/openlearn/home.php>
- Todoele <http://www.todoele.net/>
- Todoele <http://www.todoele.net/>

양 성 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어서문학과
 sunghyey@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0년 2월 28일

심사완료일: 2010년 3월 31일

게재확정일: 2010년 4월 15일